

광주시 '수출 증대' 드라이브

광주시는 지난해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광역시 중 울산,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 1986년 광역시 승격 이후 21년 만이었다. 이로써 광주는 소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생산·수출도시로서 발돋움을 시작했다. 무역수지도 지난 2003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뒤 5년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광주의 수출 호조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타이어 등이 효자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수출 성장을 세울 때 이어가기 위해 통상(通商)진흥 시책을 강화, 지역 중소업체의 수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판로개척, 수출보험료 지원 등이 그 골자다. 해외 마케팅과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13가지 시책을 통해 중소수출업체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개척단 파견·전시박람회 참

작년 100억 달러 돌파 '수출도시' 도약 해외 10여 거점도시 시장개척단 파견 보험료 등 지역업체 지원도 대폭 강화

가=시는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미, 유럽, 중동, 중국, 동남아시아의 10여개 거점 도시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 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기업에는 상담장 임차료와 통역, 바이어 발굴, 왕복항공료(50%) 등을 지원한다.

또 미국과 인도, 독일을 비롯 국내외 유명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하는 수출업체에 대해 부스 임차료, 물품운송료, 통역료,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3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전시회는 금형 4차례, 정보통신과 광산업 각 2차례 등

모두 12회다. 해외 전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15개 업체에도 3천6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 판로개척·수출 인프라구축 지원=시장개척활동을 통해 구축된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수출상담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수출계약 성사율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체별 타깃시장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바이어조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에서 업체 대신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는 해외지사화사업, 해외 출장때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세일즈지원 등

에도 6천800만원이 지원된다.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지역 중소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돋기 위해 환율변동보험과 수출신용보증보험 등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액을 기존업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했다. 수출진흥자금도 업체별 3억원 한도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25억원을 응자 지원한다.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 밖에 전문 무역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 및 무역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무역아카데미강좌'를 운영하고, 8개국에 11명의 명예무역주재관을 둘 통상활동을 촉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신기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세계 경기둔화로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지역 업체들의 저력을 뛰어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수출증대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공짜 축구 보고 경품도 받아 가세요

9일 K리그 광주 개막전 U대회 유치 봄 이벤트

올해 프로축구 K리그의 광주 홈경기 개막전인 9일 광주상무와 성남일화의 경기 때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6일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 봄 조성을 위해 상무축구단과 협의, 오는 9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전 때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상무축구단은 이번 개막

전 때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관중들을 대상으로 '2013년 하계U대회 광주 유치 기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주제를 통해 김치냉장고와 드럼세탁기, 콘도이용권, 의식권 등의 경품을 나눠주고 광주 상무 선수단의 싸인 볼 200개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큰 인기

성교육 참가 줄이어…토·일요일까지 확대

광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성교육·성문화 체험 장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측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토·일요일까지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따르면 북구 유동 광주YWCA회관 7층에 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5월부터 지금 까지 성교육에 참가한 인원이 1만5천 868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174건의 교육실적 가운데 학교방문 체험교육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방교육 56건, 견학 35건 등이었다.

광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상설 성문화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0여평의 교육시설은 만남방·탄생방·성장방·자궁방 탐험, 임신과 출산, 피임, 낙태, 사회속의 성문화 등 크고 작은 체험실로 구성돼 있으며 신체모형을 그대로 만든 시청각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화~금)의 경우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토·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 대학생은 물론 예비 신혼부부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전예약(문의 062-522-1388)을 통해 누구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치안협의회가 6일 광주시청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법질서 확립 운동'에 돌입했다. 의장인 박광태(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광주시장과 최병민(4번째) 광주지방경찰청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위원 18명이 협약서를 체결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초질서 확립 '1등 광주' 만들자

광주시 치안협의회 발족식

시민 법질서 확립운동 전개

광주시 치안협의회가 6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최병민 광주지방경찰청장, 안순일 광주교육감,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 치안협의회는 박광태 시장을 의장으로, 광주경찰청장, 광주 교육감, 광주 소방본부장,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분기마다 범시민적 기초질서 회복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폭력시위와 공권력 침해 행위, 기초·교

통질서 위반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수시로 개최하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법질서 확립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법질서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일선 구청 단위에도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법질서 확립을 범시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광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치안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올해를 법질서 회복 원년의 해로 삼아 주요 기관 및 시민단체·언론·학계·여성계가 모두 참여해 '법질서 지키기 1등 광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방경찰청

Sense Wood 신품가구 80~70%